

# 중국어의 특징과 중국인의 사유방식

이금희

## 목 차

1. 들어가며: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
2. 양면적인 중국어의 특징
  - 2.1 언어체계로 본 중국어의 특징
  - 2.2 양면적인 중국어: 고정성과 가변성 그리고 다양함과 조화
3. 이중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중국인의 사유방식
  - 3.1 양면적인 또는 이중적인 사유체계
  - 3.2 종합적인 그리고 조화 중시의 사유체계
4. 나오며

## 1. 들어가며: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

본 연구는 언어체계가 다른 중국어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중국어라는 언어체계 속에 내재된 사유체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함에 기초하여 시작된다. 우리는 중국어를 대하여 영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친숙함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중국어에서 멀리 달아나 있음을 깨닫게 되곤 한다. 여기에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의 위상이 중국어의 기대감을 높이게 하면서도 또 국제 공용어로는 영어의 사용이 더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인의 영어수준 및 영어사용빈도가 제고됨으로써 발생하는 중국어의 실효성 문제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서 오는 동기부여의 저하와 같은 이유도 있겠으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난해함이라는 내적인 요소 역시 많은 작용을 한다고 본다. 중국어는 처음 접하면 비록 성조라는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형태변화의 문법적 요소가 비교적 많은 영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기초를 벗어나서 초급을 지나 점점 고급을 향해가는 여정은 갈수록 힘들고 고되다고 느껴 도태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설사 중국어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이라도 중국어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여기는 경향이 농후해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국어에서 멀어지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외적인 요인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니하므로 먼저 내적인 요인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야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언어 속에 내재한 중국인의 사고체계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중국어를 위한 적절한 학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논문은 그 첫 단계로 현대중국어에 내재한 중국인의 사유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언어와 사유, 문화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언어와 사유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언어를 통신 수단으로 보는 견해와 언어가

사유나 인지능력을 형성한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후자의 주장은 흄볼트가 대표적인데 그는 언어구조의 차이가 사유체계나 문화의 차이를 가져오며 결국 언어는 사유체계를 결정하는 동인이 되어 한 개인의 세계관까지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sup>1)</sup>

언어가 사유체계나 문화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사유체계나 문화가 언어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 단정하기는 힘든 문제이다. 그러나 필자는 언어는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도구의 기능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역시 언어는 사유나 인지능력과도 관련 있다는 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은 언어로 사유하며,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면서 언어와 사고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다음의 흄볼트의 견해에서도 이러한 상호관련성을 알 수 있다.

언어는 사유를 형성하는 기관이다. 철두철미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말하자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지적 활동은 음성을 통하여 말로 외면화되며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지적 활동과 언어는 하나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지적 활동은 또한 그 자체로 말소리와 결합되어야 하는 필연성에 얽매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는 명료하게 될 수 없으며, 표상은 개념으로 될 수 없다. 사실. 발성기관 및 청각과 언어와의 뗄 수 없는 결합은 영원불멸하게 더 이상 해명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원천적인 조직 속에 존재한다.<sup>2)</sup>

우리는 언어와 사유는 어느 하나의 단방향적인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쌍방향적인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언어와 사유는 전후 순서에 따라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고 어느 것이 뒤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성장하고 서로 의존하며 발전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감정이 풍부한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발달되었고, 쌀이 주식인 관계로 쌀과 관련된 어휘가 풍부한 반면, 눈(雪)과 관련이 많은 환경에서 사용되는 에스키모어에는 29개나 되는 눈(雪)과 관련된 어휘들이 있다.<sup>3)</sup> 이처럼 어휘군의 범위는 언어권의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또한 같은 사물이라도 이를 지칭하는 말은 지역에 따라 민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쌀”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米”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rice”라고 한다. 이처럼 언어는 인간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약속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그 사람들이 속해있는 사회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주관적인 존재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류언어학자인 말리노브스키(Malinowski)의 언어와 사유,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에서도 잘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종족적 통일체의 가장 확실한 지표는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술과 지식,

1) 진성복, 『언어와 인간생활』 (서울:한국문화사, 1999) ,第42頁.

2) 배상식, 「M. 하이데거와 W.v. 흄볼트의 언어개념 비교연구(1)-언어와 사유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대한철학회, 2006), 第98輯. 第165頁에서 재인용.

3) 진성복, 『언어와 인간생활』 (서울:한국문화사, 1999) ,第40頁.

김문수, 「언어결정론의 어휘적 접근:중국어 어휘에 나타나는 숙명론」 『커뮤니케이션학』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第13卷 2號, 第159頁.

관습과 신념에 대한 공통의 전통(gemeinschaftliche Tradition)은 오로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공통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협동적 활동(gemeinsame Tätigkeit)이란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서로간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sup>4)</sup>

하나의 문화권에는 그 특유의 가치관이 존재한다. 하나의 언어를 구사할 때 서로의 이해의 기반이 상이하다면 원만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어느 정도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 거부하거나 오해하는 상황이 감소되어 의사소통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단지 언어의 특성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권의 고유한 가치관이나 문화, 사회, 역사 등을 함께 이해할 때 더욱더 정확한 언어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다.

언어는 인간과 인간이 생각을 전달하는 소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언어는 인간 정신의 산물임과 동시에 인간이 이루고 있는 세상 즉 사회,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인간의 사고를 구체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자음과 모음 그리고 성조가 이룬 음과 그것이 나타내는 뜻 그리고 문장구조를 배우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구조와 함께 그 안에 내재한 문화와 사회, 사람을 모두 알아야만 완벽하게 중국어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중국어에 내재한 중국인의 사고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중국어를 받아들이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지금부터 현대중국어의 특징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속에 내재한 중국인의 사유방식과 문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양면적인 중국어의 특징

중국어는 왜 어려운가?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와 중국어간의 거리 즉 언어체계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두 언어는 한자를 공유하고 있어 어휘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성조라는 낯선 발음과 문법에서 오는 거리는 상당하다.

언어 유형적 측면에서 두 언어 간의 거리를 살펴보자면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표음문자이고 다음절 언어인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이며 표의문자이며 단음절 언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sup>5)</sup> “먹다”라는 동사가 “먹었다”, “먹고”, “먹어서”, “먹으려고” 등과 같은 다양한 어미변화가 일어나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우리로서는 중국어의 “吃”는 그 하나로 표현될 뿐이어서 간편함과 함께 늘 미진함을 품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본 장에서는 현대중국어 언어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특징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도록 저변에 포괄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중국어의 특징을 추출해 보려 한다.

4) 진성복, 『언어와 인간생활』 (서울:한국문화사, 1999) ,第42頁에서 재인용.

5) 어떤 한 언어가 단음절어인가 다음절어인가의 분류 근거는 단어의 길이가 아니고 의미를 지니는 최소단위인 어소(語素)가 되어야 한다. 현대중국어의 어휘가 이음절화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으며, 비록 사전에 수록된 이음절어의 수가 단음절을 능가한다고는 하지만, 사용빈도는 다음절어보다 단음절어가 많으며, 다음절어라 하더라도 의미를 지니는 최소 단위인 어소가 단음절이므로 중국어는 유형적으로 단음절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2.1 언어체계로 본 중국어의 특징

하나의 언어는 발음과 어법과 의미가 어우러져 구성되는 복잡한 체계이다. 이 장에서는 중국어의 특징을 발음, 어휘, 어법, 수사적 측면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발음에서의 특징을 보면 중국어는 21개의 자음성모와 39개의 운모, 4개의 성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자음이 없고, 종성의 자음으로는 -n과 -ng만이 있다. 한국어의 발음은 비교적 다양한 편이어서 14개의 단자음, 5개의 복자음과 10개의 단모음, 12개의 복모음이 전체 41개의 소리를 내므로 외국어를 표기할 때 “r”, “f” 등과 같은 몇 개의 발음을 제외하고는 표기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한국인이 중국어를 발음하면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혀를 말아 올려 발음하는 권설음“zh, ch, sh, r” 정도인데 이 발음은 중국의 일부 방언에서는 없는 발음이기도 하니<sup>6)</sup> 설사 발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국어를 구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한국어는 성조언어가 아닌 반면 중국어는 성조언어이다. 중국어의 사성은 고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에게 중국어 발음을 어렵다고 여기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둘째, 어휘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보면, 어휘의 이음절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고대중국어는 단음절 단어 위주였으나 현대중국어는 주로 다음절 단어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이음절 단어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현대중국어의 이음절화 추세는 동음현상, 다의현상, 리듬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1) 竹-竹子    烛-蜡烛    月-月亮    落花生-花生    彩色电视机-彩电

유한한 음절로 많은 한자를 발음하다보면 동음자의 출현은 불가피한데 이음절 내지 다음절로 변화될 경우 단음절보다 동음자의 출현이 감소될 수 있다. “zhú”라는 발음의 글자는 “竹”, “烛”, “逐”, “舳”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竹”는 “竹子”로 이음절화하고, “烛”는 “蜡烛”로 이음절화하여 동음어를 해결한다. “月”는 의미가 “(하늘의)달”과 “(30일의)달”이 있는데 하늘의 달일 경우는 “月亮”으로 이음절화되어 다의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落花生”과 “彩色电视机”와 같은 다음절어는 이음절로 변하여 중국어 리듬감에 도움을 준다.<sup>7)</sup>

셋째, 어법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보면 어순과 허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어는 고립어로 형태변화가 일어나는 어법현상은 거의 없고 어순이 어법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2) 我骑车去体育馆。(나는 자전거를 타고 체육관에 간다.)

(3) 我去体育馆骑车。(나는 자전거를 타려고 체육관에 간다.)

위의 두 예문은 동사 “骑”와 “去”가 사용된 연동구문으로 중국어는 동작 발생의 선후에 따라 어순이 결정된다. 즉 먼저 발생한 동작은 어순에서 앞서게 되어 예(2)은 한국어로는 “나는 체육관에 가려고 자전거를 탄다”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중국어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체육

6) 吳方言, 湘方言, 粵方言, 閩方言, 客家方言 등에서는 일부 지역적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zhi, chi, shi와 zi, ci si를 구분하지 않고 zi, ci, si로 발음한다.

7) 邵敬敏, 《現代漢語通論》(上海:上海教育出版社, 2001), 第116頁.

관에 가는 것보다 선행된 동작이므로 “骑”가 “去”보다 어순에서 앞선다. 예(3)는 한국어로는 “나는 체육관에 가서 자전거를 탄다.”로 표현될 수도 있으나, 중국어로는 체육관에 가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선행된 동작이므로 “去”가 “骑”보다 어순에서 앞선다.

중국어는 개사, 조사, 접속사 등의 허사가 문장에서 어법의 주요한 기능을 한다. 가령, “从北京”하면 베이징이 출발점이고, “到北京”하면 베이징이 도착점이 된다. 이와 같이 사용된 허사가 다르면 어법 의미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 (4) 我们吃了中国菜。(우리는 중국요리를 먹었다.)
- (5) 我们吃着中国菜。(우리는 중국요리를 먹고 있다.)
- (6) 我们吃过中国菜。(우리는 중국요리를 먹었다.)

예(4)은 “了”를 사용하여 동작이 완료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예(5)는 “着”를 사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예(6)는 “过”를 사용하여 동작의 과거 경험을 나타낸다.

넷째, 수사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보면 단어로 형상적 의미를 보여준다. 현대중국어는 양사가 매우 발달되어 명사가 다르면 양사도 달라지는데 이 때 양사는 종종 명사의 형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 (7) a. 一张桌子 / 床 / 纸
- b. 一条裤子 / 路 / 鱼
- c. 一把椅子 / 刀 / 伞

예(7)a에 사용된 “张”은 평평한 면이 있거나 평평한 면이 사용되는 물체에 주로 사용되어, “책상”, “침대”, “종이” 등과 같은 단어의 양사로 쓰인다. 예(7)b에 사용된 “条”는 가늘고 긴 모양의 물체에 주로 사용되어, “바지”, “길”, “생선” 등과 같은 단어에 양사로 쓰인다. 예(7)c에 사용된 “把”는 손잡이가 있거나 손잡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체에 주로 사용되어, “의자”, “칼”, “우산” 등과 같은 단어의 양사로 쓰인다.

- (8) a. 一张中国画
- b. 一幅中国画

예(8)a에 사용된 “张”은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주로 나타내며, 예(8)b에 사용된 “幅”는 이 그림이 비단에 그려졌음을 나타낸다.

- (9) a. 我男朋友今天给了我一朵花。  
      (내 남자친구는 오늘 나에게 꽃 한 송이를 주었다.)
- b. 我男朋友今天给了我一枝花。  
      (내 남자친구는 오늘 나에게 꽃 한 가지를 주었다.)
- c. 我男朋友今天给了我一束花。  
      (내 남자친구는 오늘 나에게 꽃 한 다발을 주었다.)

예(9)a에 사용된 “朵”는 주로 꽃봉우리를 나타내고, 예(9)b에 사용된 “枝”은 줄기를 더욱 형

상화하며, 예(9)c에 사용된 “束”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묶여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꽃의 모습을 양사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미는 중국어에 비유의 사용이 많은 것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 (10) 吃醋 吃豆腐 吃鸭蛋 吃老本 吃大锅饭 喝西北风
- (11) 夹生饭 软面团 炒鱿鱼 铁饭碗 背黑锅 半瓶醋 老油条
- (12) 咬文嚼字 囫圇吞枣 看菜吃饭 吃里扒外 热锅蚂蚁 嘴甜心苦
- (13) 刀子嘴豆腐心 姜是老的辣 吃着碗里看着锅里 吃软不吃硬  
吃一堑长一智 生米煮成了熟饭 吃人家的嘴软 鸡蛋里挑骨头
- (14) 那人身强力壮, 站在那里好象一座铁塔似的。  
(그 사람은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 거기에 서있는 모습이 마치 철탑과도 같다.)  
只为那浪花的手恰似你的温柔。(다만 그 물보라의 손길이 당신의 부드러움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어에 “民以食为天(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여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은 중국문화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음식은 비단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식사를 하는 일 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식의 하나이다. 중국어에는 요리와 관련된 용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로 풍부한 표현을 만들어낸다. 예(10)은 “吃”나 “喝”를 주로 사용한 말로 “吃醋”는 “질투하다”는 의미이고, “吃豆腐”는 “여자를 희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吃鸭蛋”은 “시험에서 영점을 받다”는 의미이고, “吃老本”은 “밑천을 까먹다”이며, “吃大锅饭”은 “한술밥을 먹다”이고, “喝西北风”은 “먹을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예(11)은 “夹生饭”은 반은 설익고 반은 익은 밥을 형용하여 “일이 완성되지 못하였거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물건”을 나타낸다. “软面团”은 성격이 나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비유하며, “炒鱿鱼”는 오징어를 볶을 때 오징어가 말리는 모습으로 일을 거두는 모습을 형용하여 해고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铁饭碗”은 “철밥통”을 의미하고, “背黑锅”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나타내며, “半瓶醋”는 반만 찬 병의 내용물이 흔들거리는 모습에서 “어떤 일에 정통하지 못한 얼치기”를 나타내고, “老油条”는 세상일에 밝아 보신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한다. 예(12)는 먹는 것으로 표현되는 성어인데 “咬文嚼字”는 문자를 곱씹는 모습을 형용하여 “일부러 어려운 문자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囫圇吞枣”는 대추를 통째로 삼키는 모습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며, “看菜吃饭”은 반찬을 보며 밥을 먹는 모습에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하는 것을 나타내며, “吃里扒外”는 안의 것을 먹으면서 밖에 달라붙는 모습으로 길러준 데 배반하여 외부와 내통하는 것을 나타낸다. “热锅蚂蚁”는 뜨거운 가마솥의 개미처럼 허둥거림을 의미하며, “嘴甜心苦”는 말은 달콤하나 속은 검은 것을 의미한다. 예(13)은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으로 “刀子嘴豆腐心”은 입으로는 칼처럼 날카롭게 말하나 마음은 두부처럼 부드러운 것을 나타내며, “姜是老的辣”은 생강이 여문 것이 더 매운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 노련해짐을 비유하며, “吃着碗里看着锅里”는 공기밥을 먹으면서 술 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는 것을 비유한다. “吃软不吃硬”은 부드럽게 나오면 받아들이고 강하게 나오면 반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吃一堑长一智”는 한번 좌절을 당하면 그만큼 더 현명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生米煮成了熟饭”은 생쌀이 밥이 된 것으로 일이 이미 바꿀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비유하고 있으며,

“吃人家的嘴软”은 남에게 얻어먹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이야기한다는 의미이며, “鸡蛋里挑骨头”는 달걀에서 뼈를 골라내는 것으로 고의로 단점을 찾아냄을 비유한다. 예(14)와 같이 문장에서는 주로 “象”, “正象”, “好象”, “好比”, “比如”, “犹如”, “如同”, “恰似”, “好象~似的”, “仿佛~似的”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여 비유를 표현한다.

## 2.2 양면적인 중국어: 고정성과 가변성 그리고 다양함과 조화

중국어의 발음, 어법, 수사에서의 여러 유형적 특징과 규칙은 고정성 속에서 발생하는 가변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어는 어순과 허사가 고정적인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어법의 여러 규칙을 발생시키나 또 불규칙현상 속에서 유연하게 변화하여 중국어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준다. 이러한 가변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다양한 현상은 자유자재로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양성을 조화롭게 만드는 균형 속에서 내재하고 있다.

중국어의 대부분 고정적인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예를 발음과 어법현상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발음을 보면, 중국어는 성조언어로 글자마다 사성이라는 고정적인 음이 있어 대체적으로 고정적 음가를 유지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은 단어나 문장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3성의 음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성은 趙元任의 “五點制標記法”에서의 “214”의 음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단어나 문장에서는 “21”까지의 소리를 낸다. 또 “3성+3성”의 단어에서는 “2성+3성”으로 변한다. 3성 이외에도 중국어의 단어나 문장에서 일어나는 음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 (16) 1성+1성: 秋天 舒心 参观 天空  
 2성+2성: 华侨 严格 学习 团结  
 4성+4성: 注意 落后 继续 进步

1성과 1성이 연달아 발음이 될 때는 앞의 1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발음되며 2성과 2성이 연달아 발음이 될 때도 앞의 2성의 끝부분 발음이 조금 덜 높게 올라가고 뒤의 2성은 앞의 3성보다 시작점이 조금 더 높게 시작하고 끝부분은 더 높게 발음되어 1성과 2성 모두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리듬을 형성한다. 4성과 4성이 연달아 발음이 될 때에는 앞의 4성의 끝부분이 조금 덜 낮게 발음되고 뒤의 4성은 앞의 4성의 시작점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여 끝부분은 더 낮게 발음함으로써 점점 내려가는 리듬을 형성한다.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성조의 변화는 바로 경성인데 우리는 경성은 짧고 약하게 읽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이 경성도 음의 높낮이가 있다. 이 높낮이는 앞의 글자의 성조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 (15) 1성+경성: 妈妈 哥哥 公公 叔叔  
 2성+경성: 爷爷 婆婆 绳子 学生  
 3성+경성: 姐姐 奶奶 姥姥 宝宝  
 4성+경성: 爸爸 妹妹 弟弟 太太

“1성+경성”에서의 경성은 낮은 소리로 오점제표기법으로 보면 “2”정도이며 “2성+경성”은

중간 정도의 소리가 나는데 오점제표기법으로 보면 “3”정도의 소리이며 “3성+ 경성”은 오점제표기법으로 보면 “4”정도의 소리가 나서 가장 높으며 “4성+ 경성”은 가장 낮은 소리가 난다. 앞글자의 성조에 따른 경성의 높낮이를 보면 높은 순으로 “3성+ 경성—2성+ 경성—1성+ 경성—4성+ 경성”의 순이다. 그러나 만약 “辛苦了!”나 “太好了!”와 같이 끝부분의 발음이 “3성+ 경성”이지만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경성의 소리가 낮아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어순의 가변성을 살펴보겠다. 어순이 매우 중요한 어법 기능을 하는 중국어의 기본어순은 주어+술어+목적어의 SVO문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장성분들의 의미구조로 보았을 경우 SOV나 OSV의 형식도 역시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 (16) a. 老公吃了那一双小鸡。
- b. 老公把那一双小鸡吃了。
- c. 那一双小鸡老公吃了。

위의 예(16)은 모두 “영감이 그 병아리 한 쌍을 먹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16)a는 중국어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SVO어순이고, 예(16)b는 개사 “把”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술어 앞으로 끌어와 문장성분으로는 부사어를 만들어 놓고 있으나 의미상으로 술어의 대상이 되는 SOV형식으로 주어가 이 술어의 대상인 “那一双小鸡”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예(16)c는 술어의 대상인 “那一双小鸡”가 주어 앞으로 도치한 모습으로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OSV를 형성하고 있다.

또 다른 어순의 변화를 보자. 앞에서 중국어에서 연동구문은 동작이 발생한 순서에 의해 문장이 구성된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의 예를 보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7) A: 王先生在吗?(왕 선생님 계십니까?)
- B: 他不在, 吃饭去了。(안 계십니다.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예(17)의 “吃饭去”는 연동구문의 원칙에 따르면 먼저 발생한 동작 “去”를 “吃饭”보다 먼저 써야한다. 그런데 “去”가 사용되는 연동구문에서는 “吃饭”이 “去”의 목적일 경우 뒤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 화가가 말하려는 정보의 중심은 바로 “去”의 목적에 있다.

허사 역시 중요한 어법기능 중의 하나인데 같은 허사라도 모두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명사가 다른 성분의 수식을 받을 때 구조조사 “的”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소유가 되면 “弟弟的书”와 같이 “的”를 사용하고, 명사의 성질을 설명할 때는 “汉语书”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명사가 동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我买的书”처럼 “的”를 사용해야만 목적어와 구분을 할 수 있다. 형용사가 수식을 할 때는 “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현상은 다음과 같다.

- (18)a. 新书 新的书
- b. 小牛 小的牛   红帽子 红的帽子
- c. \*漂亮书 漂亮的书   \*重要事 重要的事

예(18)a는 “的”의 사용유무에 상관없이 의미가 같다. 예(18)b는 “的”의 사용유무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 “小牛”는 송아지를 뜻하고 “小的牛”는 몸집이 작은 소이며, “红帽子”는 옛날의 짐꾼을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하고 “红的帽子”는 붉은 모자이며, 예(18)c는 음절에 따라 “的”의 사용유무가 결정되기도 하는 예이다. 일반적으로 일음절의 명사가 이음절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的”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漂亮书”, “重要事”보다는 “漂亮的书”, “重要的事”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중국어에는 睡觉, 起床, 见面, 生气, 上课, 上班, 下课, 下班, 上学, 毕业, 放假, 留学, 住院, 出院, 散步, 跑步, 游泳, 排队, 结婚, 洗澡, 分手, 出国, 握手, 考试, 聊天儿, 出差, 帮忙, 照相, 问好 등과 같은 이합사라는 특이한 형식의 동사가 있다. 단어란 하나의 고정적 형식으로 단어 사이에는 다른 성분이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합사는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늘 붙어있다가도 어떤 다른 성분이 끼어들어가기도 하는 특수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 (22)a. 我们中秋节上午上课, 下午不上课。  
 (우리는 추석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  
 b. 我们中秋节上午上了两节课。  
 (우리는 추석 오전에 두 시간 수업했다.)  
 c. 我们中秋节上午上完汉语课, 就回家了。  
 (우리는 추석오전에 중국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22)a에서 “上课”는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붙어서 쓰이고 있으나, 예(22)b의 “上课”는 그 사이에 시대조사 “了”와 수량사 “两节”가 삽입되었으며 예(22)c에서는 결과보어 “完”과 한징어 “汉语”가 “上课”의 사이에 삽입되어 떨어져 사용되고 있다.

방위사는 원래 단독으로 문장에 쓰이지 않는다. 단독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방위사와 방위사가 결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 (23)a. 大门开着, 上面有一个小洞。(대문이 닫혀있는데 위에 작은 구멍이 있다.)  
 b. 下面有一条河。(아래에는 강이 하나 있다.)

예(23)a의 “上面”과 예(23)b의 “下面”처럼 “上”과 “下”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面”이라는 방위사를 덧붙여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 (24)a. 上有天堂, 下有苏杭。(위에는 천당이 있고 아래에는 소주항주가 있다.)  
 b. 我几乎是和我那位同时下岗的, 想想上有二老双亲, 下有独生娇女, ..... (나는 거의 내 아내와 동시에 퇴직하는데 생각 좀 해봐, 위로는 늙은 양친이 계시고 아래로는 사랑하는 무남독녀가 있으니...)

예(24)a의 “上”과 “下”, 예(24)b의 “上”과 “下”처럼 서로 대비가 되는 경우에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중국어는 대부분 동사나 형용사가 술어가 된다.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일반적으로는 “很”의 수식 여부와 목적어를 가지는가에 따라 결정한다.<sup>8)</sup>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에

서 다양한 기능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면,

- (19)a. 我们研究汉语的特点。(우리는 중국어의 특징을 연구한다.)  
b. 我们对汉语的特点进行研究。(우리는 중국어의 특징에 대해 연구한다.)
- (20)a. 我在家。(나는 집에 있다.)  
b. 我在学习汉语呢。(나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c. 我在家学习汉语。(나는 집에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 (21)a. 他红着脸, 不敢回答。(그는 얼굴을 붉히며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  
b. 你快进屋里来暖和暖和。(너 빨리 방안으로 들어와 따뜻하게 하라.)

예(19)a의 동사 “研究”는 술어인 반면, 예(19)b에서는 “进行”의 목적어가 되고 있으며, 예(20)a의 “在”는 동사로 명사 “家”앞에서 술어가 되고 있고 예(20)b의 “在”는 동사 “学习”앞에서 시간부사로 현재 진행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20)c에서는 명사 “家” 앞에서 개사가 되고 있다. 예(21)a의 “红”은 형용사이나 예외적으로 목적어를 취하는 상황이며, 예(21)b의 “暖和”는 형용사로 원래 중첩형식은“暖暖和和”이어야 하나 이때는 형용사의 사동 형식으로 사용되어 잠시 동사의 중첩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어의 가변적 특징에서 많은 다양함이 생성된다. 중국어에는 다양한 동음자를 이용한 해음현상이 있다. 예를 들면,

- (22)a. 气管炎(妻管严) 床头柜(床头跪)
- b. 年年有余(年年有鱼) 年年高高(年年糕糕)

예(22)a는 “공처가”를 뜻하는 말로 각각 “妻管严”이 기관지염인 “气管炎”과 “床头跪”가 “침대머리장”인 “床头柜”과 음이 같은데서 유래한 것이고, 예(22)b는 중국인들이 새해가 되면 먹는 생선을 먹는 것은 “年年有余”라는 인사말에서 유래한 것이고 새해에 “年糕”를 먹는 것은 “年年高高”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다음절 단어는 축약하여 전체의 리듬을 맞추는데 축약현상에서도 다양성은 엿보인다. 예를 들면,

- (23)a. 北京大学-北大 人民大学-人大  
复旦大学-复旦 清华大学-清华
- b. 汽修-汽车修理 车站-汽车站
- c. 父母-父亲母亲 影星-电影明星  
母子-母亲儿子 夫妻-丈夫妻子  
南开-南开大学 研究-学术研究

예(23)a는 대학이름을 축약한 것인데 명칭과 대학에서 한 글자씩 축출하여 “北大”나 “人大”로 축약하는 방식이 있고 “复旦”과 “清华”처럼 명칭만으로 축약하는 방식이 있다. 예(23)b는

8) 동사와 형용사를 “很”과 목적어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초보적인 분류이기는 하다. 동사이면서도 “喜欢”, “怕”, “爱”처럼 “很”의 수식을 받거나 “旅行”, “病”, “跑”, “坐”과 같이 목적어가 오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동사로 분류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자동차와 관련된 용어를 축약하였는데 “汽车修理”에서는 “汽”와 “修”를 “汽车站”에서는 “车”와 “站”을 사용하는 등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예(23)c에서의 다양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父亲母亲”은 두 단어의 앞 글자를 한 자씩 축출하여 축약어 “父母”를 만든 반면 “电影明星”은 두 단어의 뒤 글자를 한 자씩 축출하여 “影星”을 만들었고 “母亲儿子”는 네 글자의 맨 앞 글자와 맨 뒤 글자를 뽑아 축약어 “母子”를 구성하고 “丈夫妻子”는 이와 반대로 가운데 글자만을 추려서 축약어 “夫妻”를 구성했다. 마지막 “南开大学”는 앞의 두 글자 “南开”를 “学术研究”는 뒤의 두 글자 “研究”를 축약어로 사용하는 등 다양함을 나타낸다.

가변적이고 다양한 중국어의 현상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조화로움이다. 중국어를 낭독할 때는 음절과 리듬의 조화가 매우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 (24)a. 把书放在桌子上!(책을 탁자에 놓으시오!)
- b. 研究生包括在内。(대학원생도 안에 포함한다.)
- c. 听去上海的人说今年夏天比去年还热。(상하이에 간 사람에게 들었는데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한다.)

예(24)a의 “在”는 일반적으로 동사와 함께 읽어서 “放在” 뒤에 휴지가 있게 되는데, 예(24)b는 동사가 이음절이고 개사 뒤의 목적어가 일음절만 있으므로 “在”를 “内”와 함께 읽어 휴지는 “包括”뒤에 오게 된다. 예(24)c는 의미상으로 “去”가 “上海”와 관련이 있으나 “听”과 “去”가 모두 일음절이므로 함께 읽어서 휴지는 “听去”의 뒤에 있게 된다.

중국어는 문장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구조라도 단어를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면 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에 매우 신경을 쓴다. 예를 들면,

- (25) 北京啤酒, 给你带去美的享受;
- 北京啤酒, 使你感到放松自由;
- 北京啤酒, 让你去勇敢地追求;
- 北京啤酒, 值得你信赖的好朋友。
- (베이징맥주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향유를 가져다주며
- 베이징맥주는, 당신을 여유와 자유를 느끼게 하며
- 베이징맥주는, 당신이 용감하게 추구하게 해주며
- 베이징맥주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이다.)

예(25)는 베이징맥주의 광고 문안으로 거의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给你”, “使你”, “让你”를 사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변화와 다양함을 주면서도 전체적으로 구조나 자수를 맞춤으로써 정제된 미를 선보인다. 이는 비단 광고 문안에서 뿐만 아니고 중국어의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어에는 많은 동의어들이 있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는 심지어 143개의 어휘가 있다.<sup>9)</sup> 이렇게 다양한 동의어로 중국어는 문장의 다양성을 나타내면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9) 김문수, 「언어결정론의 어휘적 접근:중국어 어휘에 나타나는 속명론」 『커뮤니케이션학』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第13卷 2號, 第158頁.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6) 其实人的一生的遭遇和他是否快乐并无太大的关系。稍加细想就会明白这道理其实十分明显。我们都认识一些人，生活顺利，事业成功，但是却并不快乐。我们也知道有些人吃过不少苦头，却能以宽阔的胸怀面对世界，保持快乐的本性。

(사실 우리의 일생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은 우리의 행복과는 그리 큰 관계가 없다.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이치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우리는 생활이 순조롭고 직장에서 성공하고도 결코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적지 않은 고생을 하면서도 오히려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마주하며 낙천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예(26)에서는 “알다”와 관련된 단어로 “认识”와 “知道”를 사용하는데 “认识”는 “사람을 알다”라는 의미로 목적어가 “一些人”이 됨으로써 “生活顺利, 事业成功”은 단독의 절로 구성되고 있고 “知道”는 “정보를 알다”는 의미이므로 “有些人吃过不少苦头”라는 내용이 목적어로 온 구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두 구절 뒤에 역접관계를 하나는 “但是”로 또 다른 하나는 “却”를 사용하여 다양성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감을 잃지 않고 있다.

### 3. 이중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중국인의 사유방식

사유는 전통과 역사 속에서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지역과 시대에 따라 사유의 범위와 종류는 다르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유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므로 동양적 사유, 서양적 사유, 중국적 사유, 인도적 사유라는 대분류가 가능해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유 특성은 개연적인 것일 뿐 절대적이지는 않아서 임의적·잠정적이며 변화 가능한 것이지만 큰 범위의 지역을 전제할 때 사유의 고유한 특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사유는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서 규정짓느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본고는 고정적이면서 가변적이고 다양하면서도 조화를 꾀하는 양면적인 중국어라는 언어의 관점에서 중국인이 이중적이고 종합적인 사유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조명해보겠다.

#### 3.1 양면적인 또는 이중적인 사유체계

우리가 만약 “你身体好吗?”라고 질문을 한다면 중국인들은 “我身体很好。”라고 대답한다. “我身体好”라고 하면 안 되는가?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는 항상 “大-小, 多-少, 高-低, 远-近, 好-坏...” 등 서로 대비가 되어있어서 중국인들은 형용사가 술어로 쓰일 때 이 중 “很”없

10) 蒙培元, 《中國哲學的主體的思惟》(北京: 東方出版社, 1993), 김용섭, 『중국철학과 중국인의 사유방식』(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의 역자서문.

이 형용사만 있으면 그것과 대비가 되어있는 것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我身体好”라고만 말한다면 중국인들은 “我身体好, .....”은 “신체는 건강한데,” 이것에 대비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말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의 말을 기다리거나, “我身体好, 精神不好。”과 같이 대비가 되는 말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며,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양면적인 특색이 어우러져 하나를 이룬다. 이러한 우주의 이치는 『周易·系解傳』의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역에 태극이 있어 이는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인의 이중적인 사고는 바로 이 태극사상에서 근원한다고 하겠다.

우리가 중국인을 본심을 알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인은 상반되는 두 개의 기질, 즉 실리를 추구하는 특성과 명분을 중시하는 양상이 절묘하게 융합한 민족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실리와 명분이라는 이중성은 그 근원을 은나라와 주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3천 년 전 풍요로운 동쪽의 땅의 은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화를 중시했고 자안패라는 것을 화폐대신으로 사용하였다. 유형의 재물과 관련된 한자인 “寶(보물), 財(재물), 費(쓰다), 貨(재화), 質(바꾸다), 買(사다), 賣(팔다), 資(재물), 貧(가난하다), 貯(쌓다).....”등에 “貝”가 들어가는 것은 은나라 사람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기질의 흔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선조가 중국서북부의 유목민과 관계가 깊은 주나라 사람들은 유일 지고의 신이다 물질적인 공물보다도 선과 의, 예의와 같은 무형의 선행을 좋아하는 하늘을 섬기면서 양을 희생물로 바쳤다. “義(옳다), 善(착하다), 美(아름답다), 祥(상서롭다), 養(기르다), 犧(희생).....”등 무형의 좋은 일과 관련된 한자에 주로 “羊”이 포함되는 것은 바로 이데올로기적인 지고의 신 ‘하늘’을 섬겼던 주나라 사람의 명분을 중시하는 기질의 흔적이라 하겠다.<sup>11)</sup> 이렇듯 이중성이라는 특질은 오래전부터 중국인의 사유체계의 전체에 잠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이중적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27) 小王已经走了一个小时了。

(28) 男人没有女人活不了了。

예(27)의 “走”는 “걷다”와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위 문장은 “샤오왕은 이미 한 시간 동안 걸었다.”는 의미와 “샤오왕이 떠난 지 이미 한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예(28)은 끊어 읽기에 따라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男人没有女人, 活不了了。”로 끊어 읽음으로써 “男人”이 “有”와 “活”의 주어가 되어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의 문장으로 이해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男人没有, 女人活不了了。”로 끊어 읽음으로써 “有”의 의미상의 대상으로 “有男人”이어야 하는 “男人”이 동사술어 앞으로 옮겨져 화제가 되어있는 문장으로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살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다의적 특징은 상호 관계나 언어배경 속에서 그 의미의 모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아무 상관없이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11) Kato Toru, 《Kai to hitsuji no Chugokujin》(일본:Shinchosha, 2006), 한명희, 『패의 중국인 양의 중국인』(서울:수회재, 2007), 第23~25頁.

언어가 출현하는 상황이나 전달하려는 정보와 관련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다양한 대칭구조를 발견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속어나 속담, 대련, 시구, 문장 곳곳에서 대칭현상은 존재한다. 대칭은 비단 언어현상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29)a. 月映竹成千个字, 霜高梅孕一身花

(달빛이 대나무를 비추니 천개의 수자를 이루고 서리가 매화에 내리니 꽃 한 송이를 맺도다.)

b. 害人之心不可有, 防人之心不可无

(사람을 해하는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되고, 사람을 방어하는 마음은 없어서는 안 되다.)

대칭현상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나 내면에는 전체의 조화를 지향한다. 예(29)a에서는 “月映”과 “霜高”, “竹”와 “梅”, “成”과 “孕”, “千个字”와 “一身花”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예(29)b에서는 “害人之心”과 “防人之心”이 “不可有”와 “不可无”가 대칭을 이루는데 두 예 모두 대칭을 이루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절과 구조, 의미의 조화를 추구한다.

“矛盾”처럼 재미있는 어원을 가진 어휘도 드물 것이다. 한 사람이 창을 들고 못 뚫을 것이 없다고 하고 또 방패를 들고 못 막을 것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단지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나 사실 그 저변에는 하나의 불변의 원칙이나 고정적 관점에 집착하는 사유가 아니라 사태의 흐름이나 대상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원칙이나 전술 또는 관점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사고가<sup>12)</sup>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인들의 이중성이나 양면성은 양극에서 서로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대립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서로 상호작용에 열려 있는 연쇄과정이라고 하겠다. 이는 양면의 극단 어느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극의 정점의 대립 너머로 서로를 이끌어주는 실타래처럼 전체를 아울러 보는 중국인들 특유의 조화를 추구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유연한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 3.2 종합적인 그리고 조화 중시의 사유체계

한국어로 앞에 가는 사람을 향해 “서!”라고 외치거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 “기억해!”라고 말하는 것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站住!”, “记住!”라고 하고, “문 좀 닫아주세요!”라는 말은 “请把门关上!”이라고 한다. 한국어는 모두 ‘동작을 하라’는 말로 사용되나 중국어는 ‘동작을 통해 어떤 결과에 이르다’라고 표현한다. 이는 시제표현이 결핍되어 있는 중국어가 동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결핍되는 요소를 보충하고 있는 형태라 하겠다.

중국어가 객관적인 사물을 표현할 때 구체적이고 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곤 한다. 이는 형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문자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물을 들어 또 다른 사물을 설명하거나 비유를 잘 사용하는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한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중국인은 하나의 객체를 실재 그 자체로 인식한다. 실재 그 자체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객체가 실재하는 주변현상에서부터 비롯된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존재로 정의 내려지기보다 다

12) François Jullien, 《La propension des choses-Pour une histoire de l'efficacité en Chine》(프랑스: Éditions du Seuil, 1992), 박희영, 『사물의 성향-중국인의 사유 방식』(서울:한울, 2009)의 역사서문.

른 객체와의 비교를 통해 의미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적 사유는 논리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개별적 지식을 서로 대립시켜 어느 것이 참인지를 증명함으로써 객관성에 도달한다. 중국인은 진행 중인 과정에 내재하는 유일한 논리의 관점에서 실재를 실제 자체로부터 독특하게 해석하고자 했다.<sup>13)</sup> 이러한 실재를 보려는 중국인의 사고는 바로 구체성이며 이 구체성은 전체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성이지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들의 사유로는 인간 존재는 정신과 육체가 통일된 것으로 “형체와 정신이 합일되고(形神合一)”, “신체와 정신이 합일된(身心合一)” 전체적인 존재이며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고 인간과 자연이 합일되어 있는 전체적 존재이다.<sup>14)</sup> 다음의 예는 胡适의 <差不多先生传> 중 한 단락이다.

(30)差不多先生差不多要死的时候, 一口气断断续续地说道: “活人同死人也差……差……差不多, ……凡是只要……差……差……不多……就……好了, ……何……何……必……太……太认真呢?”  
(차부뚜어 선생은 거의 죽어가려할 때 겨우겨우 이어가는 숨으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역시 거...의...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단지 대강...어...느...정도...이면...돼, ...뭐...그리...너무...신경...쓸...필요...있겠...어? ” )

사실 이 문장의 전체내용은 디테일에 약한 중국인의 대충주의를 풍자한 내용이지만 예(30)의 “活人同死人也差……差……差不多”에서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중국인의 종합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인간과 우주가 매우 조화롭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 항상 전체를 중시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며 사물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변의 흐름을 잘 익혀야 한다. 중국의 병법에서는 훌륭한 병법가는 호전적이지 않다고 한다. 전투가 시작되어서야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천부적 자질이 있다하더라도 패배할 위험성이 많다. 가장 좋은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으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두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인의 사물의 흐름, 즉 상황을 중시한다.

사물의 흐름은 늘 유동하고 있어 가변적이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인은 하나의 원리에 따르는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때 상황에 맞는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경험적 사고를 한다.

물은 항상 흐르는 유동적 존재이다. 이는 세상이 늘 변화하는 것과 같다하겠다. 중국인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자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흐름을 파악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 하겠다. 조화를 중시하는 것은 어쩌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중국인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오며

13) François Jullien, 《La propension des choses-Pour une histoire de l'efficacité en Chine》(프랑스: Éditions du Seuil, 1992), 박희영, 『사물의 성향-중국인의 사유 방식』(서울:한울, 2009),第35頁, 第75頁.

14) 蒙培元, 《中國哲學的主體的思惟》(北京: 東方出版社, 1993), 김용섭, 『중국철학과 중국인의 사유방식』(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第29頁.

서로 다른 민족의 사유는 공통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면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느 민족이든 모두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는 존재이니까 그러하다. 어느 한 집단의 사유방식을 알아보려는 것은 어떤 특징이 누가 있고 누가 없는가의 문제이기보다 어느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있는가의 문제라고 본다.

본고는 중국어의 여러 특성을 고찰한 결과 이 특성들 저변에는 고정성과 가변성 그리고 다양성과 조화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언어와 사고의 불가분의 관계에 착안하여 이러한 양면적인 언어적 특징은 중국인의 사유방식에서도 이중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극단으로 대립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중성으로써 중국인은 그 무엇보다도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와 하나를 이루는 조화를 가장 중시하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귀납하였다.

물론 중국인의 사유방식은 이 두 가지의 특성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다. 과거의 중국인, 현재의 중국인, 표준어가 아닌 방언을 구사하는 중국인과 소수민족인 중국인 그리고 또 다른 언어와 민족과의 비교 등등 더 많은 언어와 더 많은 사람들의 색채를 연구해야만 좀 더 완전하게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은 이 많은 연구를 우선은 다음 과제로 남겨 두고 본고는 이제 『중국인이 보는 삶의 세계』에서 언급한 方東美의 말로 중국어를 통해 본 중국인의 사유체계에 대한 일차적 연구를 마무리 하려한다.

중국인에게는 자연 전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커다란 생명의 의지는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앞으로 전진하고, 교묘하게 운행을 계속하여 모든 것이 그것과 함께 변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환희로 가득 찬 우아한 춤을 추는 것 같다. 이때 모든 억제와 강제의 느낌은 새로운 자유의 황홀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인간과 대립하는 자연은 마침내 기묘한 동정심의 마력을 통해 뗏어진 서로의 우정으로 변형된다. 자연은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하나의 창조적 전진의 과정이며, 인간은 들이면서 하나가 되어(二而爲一), 생명전체는 더욱 서로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광대화해(廣大和諧)”를 이룬다는 것이다. 일관된 도 안에서 내재하는 생명과 외재하는 환경은 서로 부드럽게 융화되어 조화를 이룬다. 이와 같은 원초적 합일 속에서 다양하고 대립하는 듯이 보이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사랑이라는 노래의 반주에 맞춰 생명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15)

15) 方東美, 《中國人生哲學》(대만: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0), 정인재, 『중국인이 보는 삶의 지혜』(서울:이제이북스, 2004), 第32頁.

## 참고문헌

- 강혜근, 「중국 문자의 특성과 중국인의 사유」 『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6), 第37號.
- 김문수, 「언어결정론의 어휘적 접근:중국어 어휘에 나타나는 숙명론」 『커뮤니케이션학』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第13卷 2號.
- 남경희, 「리 또는 결-서구 이성개념의 비판을 통한 새로운 이성개념의 모색-」 『철학』 (한국철학회, 2004), 第79輯.
- 배상식, 「M. 하이데거와 W.v.호몰트의 언어개념 비교연구(1)-언어와 사유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대한철학회, 2006), 第98輯.
- 백승도, 「언어와 사유-제자백가의 언어인식에 관한 일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第19號.
- 백승도, 「중국 문화의 사유 논리에 대한 언어론적 고찰」 『중국현대문학』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第39輯.
- 엄익상,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형학적 비교」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학회, 2003), 第33輯.
- 이승훈, 「中國語의 比喻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학회, 2006), 第49輯.
- 李鐘岱, 「中國語文의 特徵-形態와 音聲을 中心으로」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5)
- 오태석, 「중국문화의 사유론적 이해-중국문학 이해의 배경적 관점에서-」 『중국어문학』 (영남중문어문학회, 1997), 第30輯.
- 장영준, 『언어의 비밀』 (서울:한국문화사, 1999)
- 진성복, 『언어와 인간생활』 (서울:한국문화사, 1999)
- 최영애, 『중국어란 무엇인가』 (서울:통나무, 1998)
- 方東美, 《中國人生哲學》 (대만: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0), 정인재, 『중국인이 보는 삶의 지혜』 (서울:이제이북스, 2004)
- 蒙培元, 《中國哲學的主體의 思惟》 (北京:東方出版社, 1993), 김용섭, 『중국철학과 중국인의 사유방식』 (서울:철학과현실사, 2005)
- 許世立, 〈中國傳統思惟與思想文化〉 《栗谷思想研究》 (한국:율곡학회, 2004), 第九一輯.
- François Jullien, 《La propension des choses-Pour une histoire de l'efficacité en Chine》 (프랑스: Éditions du Seuil, 1992), 박희영, 『사물의 성향-중국인의 사유 방식』 (서울:한울, 2009)
- Kato Toru, 《Kai to hitsuji no Chugokujin》 (일본:Shinchosha, 2006), 한명희, 『패의 중국인 양의 중국인』 (서울:수희재, 2007)
- Yasuhiro Shirai, 《外國語學習に成功する人,しない人》 (일본:岩波書店, 2004), 윤희정, 『외국어 학습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제2언어 습득론으로의 초대』 (서울:한국문화사, 2007)
- 常蒙敬, 《漢語詞彙與文化》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95)
- 郭錦桴, 《漢語與中國傳統文化》 (北京:北京人民大學出版社, 1993)

呂叔湘,〈漢語句法的靈活性〉《中國語文》(北京:中國語文出版社, 1993), 第一期.  
潘兆明·姚殿芳,《實用漢語修辭》(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87)  
邵敬敏,《現代漢語通論》(上海:上海教育出版社, 2001)  
楊德元,《漢語與文化交際》(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99)  
姚小平,《洪堡特-人文研究和語言研究》(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95)

## Abstract

The present paper is aimed to establish to being relationship of indivisibility between language and thought. Various approach about the thinking system of the Chinese is possible. But the present paper as I examines Chinese thinking method based on feature of Mandarin, trying to increase understanding the Chinese and Chinese culture that reflect language and thought Chinese is ideogram, isolating language, monosyllabic word. The present paper induce the language features which is general from this feature of chinese. First, the Chinese changes in the fixed frame appropriately according to situation. Second, the Chinese considers seriously harmony in variety. The present paper regard the Chinese' thought system as duplicate and synthetic, explicate chinese' thought system for the phenomena of language which relate with this but because Chinese organize in Han(漢) race, 55 minority race, have various language though Mandarin is the standard language, Mandarin can't put together to the Chinese thought system. Relates with this, in future detailed, versatile research about connection of dialect, minority race must become accomplished continuously.

key word : Fixed Variable Variety Harmony Duplicate Synthetic